

이것만은 꼭 알아두자

문법 10계명

·
·
·

1. **평행구조(병렬구조)**
 2. **수의 일치**
 3. **시제**
 4. **수동태**
 5. **준동사**
6. **간접의문문과 관계대명사**
 7. **조동사**
 8. **동사**
9. **동사에 줄쳐 있으면 세가지 확인**
10. **정동사와 준동사의 구별**

1. 평행구조 (병렬구조)

평행구조 : 등위접속사, 상관접속사, 비교의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각 란의 형태는 항상 같은 형태, 기능을 가진 단어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.

이들 중 등위접속사의 and 와 or 로 이루어진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.

1. 등위접속사 and와 or

- A, B, and C : A, B, C 각각은 항상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.
- A or B : A, B 각각은 항상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.

2. (등위) 상관 접속사

- 상관을 이루는 두 부분 또는 그 이상의 각각이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.
예를 들면, not only A but (also) B 구문에서 A와 B의 각 형태는 같아야 한다.
- not A but B, B as well as A, neither A nor B, either A or B, both A and B, between A and B 도 또한 마찬가지다.

3. 비교의 대상

- 비교되어지는 어떤 단어도 항상 같은 형태,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.
- would rather A(동.원) than B(동.원) : B라기 보다는 차라리 A이다 에서
→ A와 B의 각 형태는 동사의 원형으로서 항상 같은 꼴이어야 한다.
ex) The weather(A) of Korea is milder than that(B) of England.
→ A,B (= the weather)

8) 부분을 나타내는 말

-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단수인지, 복수인지, 알 수 없으므로 of 뒤에 오는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.

① 분수(기수+서수) of + 명사 + 동사
주어 동사

ex) Three-fifths of the passengers were killed in the accident.
주어 동사

② half (비율) of + 명사 + 동사
주어 동사

ex) The half of the story is not true.
주어 동사

③ the rest of + 명사 + 동사
주어 동사

ex) The rest of her life was devoted to helping sick people.
주어 동사

④ most of + 명사 + 동사
주어 동사

ex) Most of the windows are broken.
주어 동사

* 기타: a majority of + 명사, a minority of + 명사,
수량표시어구(a cup of, a set of, a piece of)

3. 시 제

수능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시제 전반적인 골격은 과거와 현재완료, 과거와 과거완료의 구분이다. 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
- 반드시 시간부사(구,절)를 확인할 것

1. 과거와 현재완료 구별

1) 과거

-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은 과거로 나타낸다.

예를 들면, 시간부사(구) : ago, last + 시간명사, yesterday, 지난 년도 등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모든 시제는 과거로 나타낸다.

2) 현재완료 (have+p.p.)

(1)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르는 시제를 말한다. 따라서 과거 ~ 현재까지의 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는 시제이므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쓸 수 없다.

Ex) In the summer of 2001, he has visited Asan, Korea.

→ 위 문장의 has visited는 현재완료이다. 현재완료는 시간의 과정을 말해주므로 'In the summer of 2001' 이라는 과거의 한 시점과는 쓸 수 없다. 따라서 과거동사 visited로 고쳐야 한다.

(2)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올 때는 현재완료를 써야 한다.

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는 부사(구) :

- how long, for + 숫자 로 나타나는 시간단위, for a long time 등

(3) 특히, 현재완료와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since(~이후로, ~이래로)는 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.

① 주어 + 현재완료(have + p.p.) ~ since + 주어 + 과거동사(과거시점).

② Since + 주어 + 과거동사(과거시점) ~ 주어 + 현재완료(have + p.p.) ~ .

2. 과거와 과거완료 구별

1) 과거완료 (had+p.p.) 또는 대과거

- 과거시제의 글에서 그 과거 상황보다 어떤 상황이 먼저 일어난 경우는 반드시 과거완료(대과거)로 나타낸다.(과거시제와 항상 관련 있음)

Ex) Yesterday I **lost** the book (that my father **had bought** me).

→ 위 문장에서 lost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. 그런데 ‘잃어버린’ 시점보다 ‘책을 사준 상황이 더 빠르다’ 이때 한 상황이 먼저 일어난 경우는 과거완료(had+p.p.)로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.

3. 가정법

1) 가정법 과거

▪ If + 주어 + 과거동사(were) ~ 주어 + 조동사의 과거 + 동.원 ~

- 위 문장에서는 반드시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를 확인해야한다.

- If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, 동사는 도치된다.

Ex) If I had a bill larger than \$20, I **won't** eat here

→ 위 문장에서 won't는 would not로 고쳐야한다.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.

2) 가정법 과거완료

- If + 주어 + had + p.p ~ 주어 + 조동사의 과거 + have + p.p. ~
- 마찬가지로 If가 생략되면, had + 주어 + p.p.로 도치된다.
-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 다음 have + p.p.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.

Ex) Had this not happened, Johnny die then there.

①

②

→ ①번 문장은 if가 생략되어 도치되었고, 과거완료시제이므로 ②번의 die는 would have died로 고쳐야 한다.

3) 가정법의 변형된 형태

① 주어 + suggest + (that) + 주어 + (should) + 동.원 ~.

→ 위 문장은 가정법의 한 변형된 형태로서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. suggest류의 동사(insist, propose, order, advise, demand 등)가 주절에 오고 다음 that 절에서 시제는 should + 동.원이 온다. 이때,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.

Ex) He suggested that I sought the help of the goldsmith who had made it.
→seek

* 시점이 달라질 경우 또는 뜻이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.

Ex)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should take place on the crosswalk.
→had taken

→ 위 문장에서 목격자들의 주장과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분명 다르다. insisted는 과거이고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 먼저이므로 한 시제 빠른 시제로 고쳐야 한다.

② It is (high) time (that) 주어 + 과거동사(= should + 동.원) ~ .
(~ 할 때다)

Ex) It is high time that you went to bed.

4. 수동태

수동태: be+p.p 형태

- be(get) 동사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또한 목적어가 없는 1, 2형식동사는 수동태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-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꼭 확인할 것

1.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다.

Ex) Cash should never be sent in the mail.

예외) 4형식 문장에서 보류목적어, 5형식 목적보어가 명사일 때

Ex) The book was given (to) someone else by him. (4형식 수동태)
보류목적어

Ex) He is called tough guy. (5형식 목적보어가 명사일때)
명사

2. 수동태 불가 동사 : appear, look, seem, happen, occur(= take place)

- be appeared to, be looked (like), be seemed to 로 나타낼 수 없다.

- 진행형 불가, 수동태 불가 동사 : belong, resemble

3. think, believe, suppose, guess, imagine, consider, know, expect

- 주어가 사물이면 수동태로 나타낸다.

4. use 관련 용법

- 수동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출제된 형태인 use관련 용법이다. 다음을 반드시 구분하여 외워 두도록 한다.

① used to + 동.원 : ~하곤 했다 (과거에는) ~했었다

② be used to + 동.원 : ~하는데 사용되다

③ be(=get) used to + ~ing(명사) : ~하는데 익숙하다 = be accustomed to

→ 위 ① ② ③ 중에서 be동사가 있고 없음을 확실히 알아두자.

*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수능 및 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종합해 보면,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. 기본적인 형태를 숙지하고 특히 무생물이 주어일 때는 수동태로 나타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.

5. 준동사

준동사 : 준동사라 하면 원래 동사였던 것이 다른 품사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. 한 문장내에는 단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, 그 동사를 정동사라 하고, 부정사, 동명사, 분사는 다른 품사로 전환된 것이다. 따라서 동사에 준하는 위 세 가지를 **준동사 또는 부정(不定)동사**라 한다.

1. to부정사가 올 때와 동명사(~ing)가 올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

- stop + to R : ~하기위해 멈추다
- stop + ~ing : ~하던 것을 멈추다

- remember + to R : (미래) ~할 것을 기억하다(잊지 않다)
- remember + ~ing : (과거) ~한 것을 기억하다(잊지 않다)

- forget + to R : (미래) ~할 것을 잊어버리다
- forget + ~ing : (과거) ~한 것을 잊어버리다

- try + to R : ~하려고 애쓰다, 노력하다
- try + ~ing : 시험삼아 ~해 보다

- mean + -ing : -을 의미하다
- mean + to R : - 할 작정이다. 의도이다

- regret + -ing : -을 후회하다
- regret + to R : -해서 유감이다

2. to 부정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구

1)

- ① 형.부 + enough to + 동.원 (○) - 형용사, 부사 위치 꼭 확인할 것
- ② enough + 형.부 + to + 동.원 (×)
- ③ enough + 명 + to + 동.원 (○) - enough 다음에 명사가 오는 형태를 더 많이 쓰임
- ④ 명 + enough to + 동.원 (△) - 잘 안 쓰이는 형태

2) It takes + 목적격 + 시간 + to + 동.원 : ~가 to 이하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
= It takes + 시간 + for + 목적격 + to + 동.원 - 순서 확인

3. 동명사와 관련된 중요 문구(반드시 암기)

- to 부정사와 구별하여 to 다음에 ing를 쓰는 전치사 to (동사가 올때)

- look forward to + ~ing : ~를 학수고대하다
- devote A to + ~ing : A를 ~하는데 바치다
- object to + ~ing : ~를 반대하다
- spend + 시간(돈.노력) ~ing : -하는데 시간을 보내다
- keep(stop=prevent=prohibit) A from -ing : A로 하여금 -ing를 못하게 하다

(1) to 부정사

- 명사, 형용사,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, 출제 경향에 따르면 명사의 역할에 주목

① 명사로서의 역할

▪ 주어, 보어, 목적어 역할 - 진주어, 진목적어 역할

② 의미상 주어

▪ for + 목적격 + to R (일반적)

▪ of + 목적격 + to R (성질, 성격의 형용사일 때)

③ 부정 - 모든 준동사의 not의 위치는 준동사 바로 앞에 둔다.

▪ not to + 동.원 : 부정할 때 to 앞에 not이 위치

(2) 동명사

① 명사로서의 역할

주어, 보어, 동사의 목적어,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

② 의미상 주어 - 소유격이 원칙 (목적격도 됨) - 전치사 + 소유격 + ~ing

- to 부정사처럼 for, of을 쓰지 않고 단지, 소유격으로 나타낸다.

(3) 분사 - 형용사 역할(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중점)

- 현재분사(~ing) : 능동, 진행 과거분사(p.p.) : 수동, 완료

*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: 후치수식

* 준동사 시제

① to 부정사 완료 부정사: to have p.p (한시제 빠름)

② 단순 부정사: to + 동.원 (같은 시제, 또는 한 시제 느낌)

③ 동명사 완료 동명사: having p.p 단순 동명사 : 동.원+ing

④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: having p.p 단순 분사구문 : 동.원+ing

3)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으면, 반드시 동사는 두개가 있어야 한다.

4)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→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.

→ 다만, 관계대명사 what 은 선행사가 자체 포함되어있다. 따라서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다.

5)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, that, 관계부사 구별.

① 주어 + 동사 + that + (주어 + 동사 ----): 완전한 문장(1형식 - 5형식)

→ 접속사

② 주어 + 동사 + what + 주어 + 동사 ---- : 불완전한 문장

주어 + 동사 + what + 동사 ----- : 불완전한 문장

→ 관계대명사

③ 주어 + 동사 + 선행사 + that + 주어 + 동사 ---- : 불완전한 문장

+ that + 동사 ----- : 불완전한 문장

→ 관계대명사

④ 주어 + 동사 + 선행사 + 관계부사 + 주어 + 동사 ---- : 완전한 문장

→ 관계부사(where, when, why, how)

* that은 단순한 접속사로서 문장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.

그러나 what은 관계대명사 이므로 문장 내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, 보어역할을 한다.

7. 조동사

조동사 : 당연히 중요한 문법사항이다. 하지만, 실제로 출제빈도는 낮은 편이었다.
조동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
조동사 + have + p.p. 구문이다.

1. 조동사 + have p.p

- ① should have + p.p. = ought to have + p.p. : ~을 해야만 했었는데 (하지 못했다)
(과거의 유감이나 후회)
- ② must have + p.p. : ~이었음에 틀림없다 (should have + p.p. 와 반드시 구분할 것)
(과거의 확실한 단정) - 여기서 must는 의무의 의미가 아님
- ③ may(might) have + p.p. : ~이었을 지도 모른다.
(과거의 막연한 추측)
- ④ cannot have + p.p. : ~이었을 리가 없다
(과거의 부정적 추측) - must have + p.p.와는 반대되는 의미
- ⑤ need not have + p.p. : ~할 필요가 없었는데 (했다)

8. 동사

1. 동사의 종류

1) 감정동사

- 감정동사라 함은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를 말한다. 예를 들면, excite, disappoint, please, interest, confuse, discourage, worry 등등 의미자체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한다.

이런 동사의 형태가 자주 출제되는 데 다음을 꼭 알아두기 바란다.

- ① 사람주어 + 동사 + P.P(감정동사)형태 - 과거분사
- ② 무생물주어 + 동사 + ~ing(감정동사)형태 - 현재분사

2) 자동사 lie 와 타동사 lay

(1) 자동사 lie

lie - lay - lain (lying): 눕다 → 명사를 취할 때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한다.

cf) lie - lied - lied : 거짓말하다

(2) 타동사 lay

lay - laid - laid (laying): 눕히다, 알을 낳다, 두다

→ 전치사 없이 명사가 바로 온다.

* rise(-rose-risen : 자동사)와 raise(-raised-raised : 타동사)도 마찬가지로.

3) 지각동사와 사역동사

(1) 2형식 지각동사

- 보어로서 형용사나 전치사 명사가 온다.

① look, sound, smell, taste, feel + (부사) + 형용사
+ 전치사 + 명사

(2) 5형식 지각동사

① see, watch, hear, listen to, feel + 목적어 + 동.원(~ing)

: 목적어와 동사의관계가 능동일 때

② see, watch, hear, listen to, feel + 목적어 + p.p(과거분사)

: 목적어와 동사의관계가 수동일 때

(3) 사역동사

① have, make, let + 목적어 + 동.원

: 목적어와 동사의관계가 능동일 때

② have, make, let + 목적어 + p.p(과거분사)

: 목적어와 동사의관계가 수동일 때 (let은 be + p.p)

* 지각동사든, 사역동사이든 to+동.원은 틀린다.

4) help동사

- 3형식 : help + (to) 동.원 5형식 : help + 목적어 + (to) + 동.원

5) 목적보어로 to + 동.원 을 취하는 동사

- ask, allow, tell, advise, forbid, get(시키다), order, expect 등등

6) keep + 목적어 + 형용사(-ing, p.p)

7) so + 조동사(be동사) + 주어 : 또한, 역시

① so + 주어 + 동사 : 결과 (그래서)

② so + 주어 + 동사 : 강조 (정말 그래 : 맞장구)

9.동사에 걸쳐 있으면 세가지 확인

문법은 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. 이것이 전체 수능 문법에 80%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문법문제에 접했을 때, 동사에 밑줄이 있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하자.

1. 수의 일치

- 주어를 찾아 그 동사의 수가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.
- 단수, 복수 형태가 올바른가를 확인

2. 수동태 확인

-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확인하여 수동태로 나타내야 하는지 확인한다.
- 수동태는 be + p.p.

3. 시제 확인이다.

- 시간부사를 확인하여 시제가 올바른지를 확인한다.

* 항상, 이상 세 가지를 버릇처럼 확인하라.

거의 어법상 어색한 부분은 세가지 중 80%는 잘못 되어있다.

10. 정동사와 준동사의 구별

정동사와 준동사를 분명히 구별 할 줄 알아야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. 다음 각 두 가지의 형태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아두자.

1. 정동사와 to+동.원(-ing, p.p)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

- 하나의 문장에는 단 하나의 정동사가 있다.
- 나머지 형태의 동사들은 문장 하나에 필요한 정동사가 아니라, 준동사(to부정사, 동.원, -ing, p.p)들이다. 이를 먼저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.
- 한 문장에는 단 하나의 정동사가 있고, 접속사의 수에 따라, 정동사의 수는 하나씩 늘어난다. (정동사의 수 = 접속사 + 1)

Ex) (Answer / Answering) this question in a new, unexpected way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.

→ 문장은 하나이고, 이미 정동사 'is'가 있다. 따라서 더 이상 정동사가 오면 틀린다. 따라서 답은 Answering(동명사)이다.

2. 현재분사(-ing)와 과거분사(p.p)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

- 이는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, 하나는 타동사의 경우 능동형, 수동형을 구분하는 문제이고, 다른 하나는 감정동사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.

1) 타동사의 능동형, 수동형 구분

- ① 현재분사 - 능동, 진행 (뒤에 목적어가 온다 - 타동사인 경우)
- ② 과거분사 - 수동, 완료 (뒤에 목적어가 없다 - 타동사인 경우)

2) 감정동사

- ① 사람이 주어인 경우 - p.p.(과거분사)
- ② 사물이 주어인 경우 - ing(현재분사)